18. 사유화할 수 없는 역사

朝鮮王朝實錄

권력을 가진 자가 역사 기록을 좌지우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조선 시대에는 역사가 후대에 주는 영향을 중시하고, 당대 정치의 잘잘못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자 했다. 권력으로 역사를 사유화하지 않았던 성군의 모습을 통해 사실적 역사 서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十三年에 上曰 "太宗實錄垂成하니

予欲觀之라." 하시니 右議政孟思誠曰 "實錄所載는

皆當時之事로 以示後世하니 皆實事也니이다.



새로 배울 한자

錄 **록** 기록하다
懼 **구** 두려워하다
垂 **수** 드리우다, 거의
職 **직** 벼슬, 직분
予 **여** 나
殿 **전** 궁궐
疑 **의** 의심하다

- 吏의 쓰임을 알 수 있다.
- 역사는 권력에 의해 사유화될 수 없음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殿下見之라도 亦不得爲太宗更改하고 今一見之면

後世人主效之하고 史官疑懼하여 必失其職이리니

何以傳信將來리오?" 하니 上從之하니라. "국조보감"



읽고 풀이하기



十三年, 上曰: "太宗實錄垂成, 予欲觀之."
임금(세종) 거의 나 그것(태종실록)

右議政孟思誠曰: "實錄所載, 皆當時之事,
~바(것) ~의

*孟思誠(맹사성) : 고려 말·조선 초의 문신(文臣)

以示後世, 皆實事也.
모두 ~이다

그것(태종실록) 위하여
殿下見之, 亦不得爲太宗更改,
임금에 대한 존칭 ~할 수 없다 고치다

今一見之, 後世人主效之, 史官疑懼,
임금 그것 의심하다

必失其職, 何以傳信將來?" 上從之.
무엇으로 임금 그것

반드시 그 직분을 잃고 말 것이니 무엇으로 장래에 믿을 만한 사실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그의 말을 따랐다.

*之 : ① ~의(한), ~이(가)
② 그것
③ 가다

*爲 : ①하다 ②되다 ③**위하다**
④생각하다 ⑤다스리다

*更 : ① **갱** 다시
更生(갱생)
更新(갱신)
更年期(갱년기)
② **경** 고치다
變更(변경)
更新(경신)
追更(추경)
甲午更張(갑오경장)

조선왕조실록 읽어 보기

조선왕조실록에서 자신의 관심 주제어를 검색하고, 알게 된 사실과 소감을 발표해 보자.

생각 넓히기

알게 된 사실과 소감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국보 151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이다. 조선왕조실록의 원문(한문)과 국역문, 원본 이미지를 제공한다.

인문학 더하기

세계가 인정한 조선왕조실록

중국에는 『대청역조실록』, 『황명실록』, 일본에는 『삼대실록』, 베트남에는 『대남실록』이 있지만 『조선왕조실록』만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가치를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왕조실록』은 총 25대 군주(472년)의 장구한 역사를 수록하고, 조선 시대의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학예, 종교, 과학 분야와 국왕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의 생활 기록을 풍부하게 담았다. 그리고 금속 활자로 인쇄하여 발달한 문화 수준을 반영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기록은 진실성과 신빙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조선왕조실록』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내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규율에 따라 작성되었다. 실록은 반드시 해당 왕의 사후에 작성되었으며, 편찬에 이용되는 자료는 주요 기관의 문서와 사관(史官)이 작성한 사초(史草)였다. 사초는 내용의 보안과 사관의 신분 보장을 위해 국왕을 포함하여 누구도 열람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사관이 그 내용을 누설하면 중죄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사관은 사소한 사실까지도 왜곡 없이 작성하였다. 심지어 태종실록의 태종 4년 2월 8일에는 "왕이 사관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였다."라는 기록마저 보인다.

조선 시대 실록은 격리된 사고(史庫)에 분산 보관하였고, 국왕이나 대신들도 사사로이 열람할 수 없었으며, 오직 국정 운영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였다. 실록을 고증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히 사관을 파견하여 현안과 관련된 부분만을 등사하여 오도록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은 편찬과 관리가 이처럼 엄격하였기 때문에 당대 정치의 잘잘못과 왕과 신하들에 관해 사실대로 기록하였고, 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참조: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어휘력 키우기



1 '金'이 들어간 한자

銅 동 구리 _ 銅像 동상　鋼 강 강철 _ 鋼板 강판　鐵 철 쇠 _ 鋼鐵 강철
鎭 진 진압하다 _ 鎭火 진화　鎖 쇄 자물쇠 _ 封鎖 봉쇄　鍊 련 단련하다 _ 鍊磨 연마

2 모양이 비슷한 한자

垂 수 드리우다 _ 率先垂範 솔선수범
睡 수 잠자다 _ 睡眠 수면
郵 우 우편 _ 郵便 우편

職 직 벼슬 _ 殉職 순직
識 식 알다 _ 面識 면식
織 직 짜다 _ 組織 조직

3 역사극에서 자주 쓰는 어휘

- 卿 **경** 임금이 二品(이품) 이상의 신하를 가리키던 말
- 殿下 **전하** 조선 시대에 왕을 높여 이르거나 부르던 말
- 寡人 **과인** '덕이 적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임금이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말
- 小妾 **소첩** 부인이 남편에게 자신을 낮추어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
- 康寧 **강녕**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함.
- 罔極 **망극** 임금이나 어버이의 은혜가 한이 없음.
- 賜藥 **사약** 죽을죄를 범하였을 때 임금이 내리는 독약
- 洞燭 **통촉**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을 깊이 헤아려 살핌.
- 黨爭 **당쟁** 무리를 이루어 서로 싸우던 일
- 御醫 **어의** 궁궐 내에서 임금이나 왕조의 병을 치료하던 의원

새로 배울 한자

銅 **동** 구리　像 **상** 형상　鐵 **철** 쇠　鎭 **진** 진압하다　鎖 **쇄** 자물쇠
封 **봉** 봉하다　鍊 **련** 단련하다　磨 **마** 갈다　率 **솔** 거느리다, **률** 비율　範 **범** 법, 본

확인하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十三年, 上曰: "太宗實錄垂成, ㉠予欲觀之." 右議政孟思誠曰: "實錄所載, 皆當時之事, 以示後世, 皆實事也. 殿下見之, 亦不得爲太宗更改, 今一見之, 後世人主效之, 史官㉡疑懼, 必失其職, 何以傳信將來?" ㉢上從之.

1. 의미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① 子 ② 我 ③ 此 ④ 汝 ⑤ 彼

2. ㉡의 독음으로 옳은 것은?

① 사심 ② 사기 ③ 의기 ④ 의심 ⑤ 의구

3.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의 의미로 옳은 것은?

① 다시 기록하라고 하였다.
② 사관을 교체하지 않았다.
③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였다.
④ 기록된 내용을 보지 않았다.
⑤ 실록이 빨리 완성되게 하였다.

睡 **수** 잠자다 殉 **순** 따라 죽다 識 **식** 알다 織 **직** 짜다 組 **조** 짜다
卿 **경** 벼슬 寧 **녕** 편안하다 御 **어** 다스리다, 임금